

18장. 토기장이의 비유와 예레미야의 고백 (4)

18-20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을 방문하는 것(18:1-12)과 오지병을 깨뜨리는 사건(19:1-13)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에 예언자의 고백과 탄식이 교차하고 있다(18:13-23; 19:14-20:6; 20:7-18).

1. 토기장이 집을 방문한 일 (18:1-12)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가라고 하셨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 나오자 다시 반죽하여서 원하는 모양을 빚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새로 빚어서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돌이키겠다고 하셨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말씀하셨던 '뿔고 파하고 멸하는 일'과 '건설하고 심는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권적으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하셨다(1:10).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하리라" 하였다(18:12).

이들은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다. 첫째, 토기가 토기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있다. 예언자의 말이 '헛된 말' 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 생명을 약속하였으나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과 강박한 마음대로 행하였다. 생명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강박한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2. 하나님의 심판 선언 (18:13-17)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증인으로 삼고서 처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배반을 심판하겠다고 하셨다. 레바논의 높은 산에서 흐르는 물이 시원한 것처럼, 여호와와 사랑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그들에게는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에 노출되어서 큰 가뭄을 겪고 결국에는 그 바람에 흩날려질 것이다.

3. 예레미야의 넷째 고백 (18:18-23)

1) 지도자들의 꾀 (18:18)

여호와와 심판이 선언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더 사납게 나아온다. 그들은 제사장, 지혜자, 예언자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는 그 직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기들이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혜자로서 모략이 있고 예언자로서 말씀을 계속 받고 있으므로 예레미야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한다.

그들은 그렇게 불필요한 예언자를 두 가지로 공격하자고 한다. 첫째, 그들의 혀로 예레미야를 치자고 한다. 그들이 제사장과 지혜자와 예언자로서 율법과 모략과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의 혀로 예레미야를 치자고 하는 것이다. 숨어서 화살을 날리듯이 근원을 알 수 없는 말을 거짓으로 유포하면서 그들의 혀로써 예레미야를 치려고 하였다. 둘째, 예레미야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자고 한다. 예레미야와 백성의 사이를 내어서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자는 말이 된다. 그리고 대중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의 말로 공격을 받고 자기의 말은 전할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할 것이다.

2) 그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해 주소서 (18:19-23)

예레미야의 넷째 고백을 보면 다섯 단어가 두 번씩 나온다. 여호와(19, 23절), 선(20절), 칼(21절), 죽음(21, 23절), '구덩이를 파다' (20, 22절). 그리고 19절에서 '여호와' 를 부른 후에 22절의 '여호와' 까지는 일곱 개의 명령형 혹은 권유형이 나온다(20-22절). 따라서 '여호와' 와 '구덩이를 파다' 는 말이 이 부분에서 액자처럼 간구의 내용을 둘러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곱 개의 명령형 중에서 특히 자녀, 아내, 장정, 청년의 네 부류가 21절에 나오고 22절에서는 '그들의 집' 으로 요약한다. 이러한 구조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여호와 (19절)

구덩이를 파다 (20절)

자녀, 아내, 장정, 청년 - 그들의 집

구덩이를 파다 (22절)

여호와 (23절)

이렇게 놓고 보면 원수가 판 구덩이에 누가 빠지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에 호소하는 예언자 예레미야는 원수들로 하여금 그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

19 여호와 주님, 저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를 고소하는 자들을 들어 보십시오.

20 선을 대신하여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들은 저의 목숨을 노리면서 **함정**을 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서

그들에 관하여 **선한** 것을 말하고,

주님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구하였다. 예레미야의 원수들이 공격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그의 소명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그를 ‘열방의 예언자’로 부르신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한 예레미야는 그의 원수들의 행위를 지적한다. 선과 악을 대비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을 하였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선언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을 하였지만 그의 원수들은 악으로 그 선을 갚아주려고 하였다. 예레미야의 직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였다.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전한 선한 말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였다. 그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드렸다.

21 그러므로 그들의 자식을 기근에 넘기시고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식과 남편을 잃고

그들의 남편들은 염병으로 침을 받게 하십시오.

그들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칼로 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22 주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악탈자를 보내실 때에

그들의 집에서 울부짖음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고

제 발이 걸리도록 덫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것을 구하던 예언자는 그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의 말씀이 조롱을 당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집에 심판을 내리시기를 구한다. 21절에서는 자녀, 아내, 장년, 청년으로 말하고 22절에서는 ‘그들의 집’으로 요약한다. 노략꾼이 갑자기 그들의 입에 들이닥쳐서 그들의 집을 황폐케 할 것이다. ‘칼’을 두 번 언급하여서 전쟁에서 패하여 죽는 자가 많음을 표시한다. 기근을 당하여 아이들이 죽게 될 것이다. 또한 ‘장정이 사망을 당한다’는 말은 주로 ‘염병’으로 죽는 것을 가리킨다.

예레미야는 그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한다.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기도한다.

23 그러나 여호와 주님,

주님께서는 나를 죽이려는 생각을 모두 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서 지우지 마시며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그들을 처분해 주십시오.

예레미야는 신원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였다. 여호와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악’ 이고 ‘죄’ 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분을 쏟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의 노하시는 때에” 행하기를 구하였다.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실런지는 사람이 알 수 없으므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한 심정으로 예레미야는 기도를 드렸다.

넷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없다. 주님께서 거짓 예언자 하나나를 죽이신 일이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하셨지만 예레미야가 그러나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떠한 응답을 즉시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18장의 기도는 19장에서 오지병을 깨뜨리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일로 이어진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시 그다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목상과 실천:

신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의

1. 토기장이를 무시하는 흠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보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면 새로 지어 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다. “이 사람이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롬 9:20-21)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돌이키면 새로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하였다. 자기들의 악한 생각대로 강박하게 행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거부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완고함과 악함을 본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질 것이다.

2. 신원의 기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좋은 말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지 말고 구원해 달라고 구하였다가 후에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죄를 보복해 주시기를 구하였다. 예레미야 18장의 내용은 시편 35, 69, 109편과 비슷한 점들이 있다. 109편의 시인은 악인이 거짓된 헛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는 오히려 악으로 선을 갚는 현실에 놓였다. 그러한 때에 보복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의 직분은 타인이 취하고 자녀, 아내가 모두 어렵게 되고 그의 집이 황폐케 해 달라고하였다.

109편의 내용을 생각하면 찬송으로 부르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런데 109편 다음에 110편이 나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109편에 ‘오른편’ 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110편에도 ‘오른편’ 이라는 말이 두 번 있어서 두 시가 의도적으로 연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연결된 두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주다. 주님은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사랑하시는 아드님에게 쏟으시고서 주님은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중보자가 있다. 그분은 110편에서 예언한 다윗의 후손이자 다윗의 주로서 구원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께 신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고 위로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신원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임한다. 예레미야의 중보적 사역을 거부한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형벌은 더 클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속에 진리가 있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짓을 만들어 내거나 유포하는 사람은 그의 안에 진리가 없음을 뜻한다. 요한계시록 21:8, 27, 22:15 등에서는 거짓말을 중요한 주제로 언급한다.

예레미야는 구약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을 놓고서 씨름하였는데 시편에도 그러한 말이 많이 나온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신약의 교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 영원한 형벌을 피하려면 거짓을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나라는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거짓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무한한 엄위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18장 익힘 문제

1.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에서 토기장이와 진흙은 각각 누구를 가리킵니까?
2. 1) 여호와께서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8, 11절)
2)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 3) 여호와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난이 임하게 하실 것인데 그날에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면서 무엇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까? (17절)
3. 1) 이스라엘 백성이 꾀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할 때 그들이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2) 그들은 예레미야보다 어떤 사람들을 더 신뢰하였습니까? (18절)
3)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18절)
4.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20, 22절)
5.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까? (19-23절)